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9호

발행일 : 2017. 11.1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순간순간 느껴 더 피곤함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때의 순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결국
아름답게 하게 된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제 마음 안에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다.
- 기쁨의 천국 가문의 중 -



<이달의 간증>

김병연 청년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경험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호서고등학교 학년에 입학할 때 3년 장학생으로서 들어갔었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2퍼센트 성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적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과외도 많이 다니곤 했으나, 상황이 그리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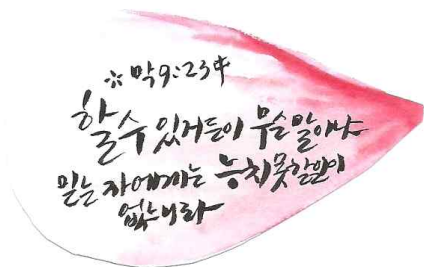


그렇게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3학년인데 힘내야지’라는 응원과 후배들의 불쌍하다는 동정의 말, 또 선배들의 진심어린 충고까지...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제 성적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정도의 대학은 가기 힘들 것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1일 1성전 밟기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수요일예배 금요일야 토요일 학생예배 주일 대예배 총 네번의 예배를 매주 나가고 있었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밟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시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서 교회까지는 걸어서 30~40분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교회에서 집까지는 20분정도 더 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11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면 새벽 1시 다 되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주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안쓰러우셨는지 차로 태워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수시 지원기간이 되었는데 총 다섯 군데의 대학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상향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향을 하나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반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상향지원을 해도 붙을까하는 생각이 잠깐 들때도 있었지만 그런 의심은 금방 사라졌고 저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례차례 대학 합격공지가 뜨고 친구들 사이에서 희비가 갈릴 즈음에 저는 5개 지원학교 중 4군데가 불합격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수능은 부족한 성적이고, 남은 건 상향지원한 단국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걱정이란 건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놀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몇 주 뒤 합격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성전 밝기 한 노력과 열정이 보답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마지막에는 결국 축복을 내려 주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간증이 누군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된 거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붙었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느꼈던 평안함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의 순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 합격까지 하게 된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심이란 것은 제 마음 안에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과 참 많 이 도 닦으신
 우리 권사님은
 미소 또한 예쁜 분이십니다.
 늘 지극처럼 예수님의
 향기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당진순복음교회 권사 이금자입니다. 남편 박영만집사와 아들 둘을 두고 있고 자녀는 하나님 은혜로 모두 출가하여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들려주세요.

박집사님과는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만났어요. 어머님들과 함께 찻집에서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았어요. 착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몇 번 데이트라는 것도 못해보고 결혼했습니다. ^^ 부모님들이 서두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

3. 우리교회는 어떻게 출석하게 되셨어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지만 이전부터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4. 권사님과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의 모든 것을 간섭해주시는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5. 슬하에 두 아들을 두셨어요. 키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두 아이 모두 착하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애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 그 옛날 온전하고 순전했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6.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두 며느리를 보시기전 며느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구요~ 부모님이 많이 기도하는 가정의 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멋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 권사님은 어떤 시어머니세요?

며느리들 힘들게 안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말이든 일이든 어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맘 편하게 해 주고 싶어요.

8. 남편 되시는 박집사님의 권사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해 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 잘 해 주십니다. 박집사님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좋아 하는 맛난 것을 많이 사다가 집에 쌓아 두십니다. 또 옷도 잘 사주시고요. 아! 제가 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 잘 나가지 못해요. 박집사님이 가지, 오이, 호박 등등 다 따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밥상으로 보답하지요~

9. 두 분은 금슬이 좋아보이세요. 부부싸움 해 보셨어요?

박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도 드셨어요. 그때 그런 일로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집사님이 하나님 믿은 이후로 술도 다 끊으시고 세상 것들도 접어가시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 싸울 일이 없네요. ^^

10.올케가 전도사님이신데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도한대로 됐으니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한걸 보장하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해 주신거잖아요.

11.권사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나잇살도 없이 날씬하세요.

혹시 저녁을 굶으시나요?

저녁은 꼬박꼬박 많이 먹습니다. 다만 제가 소화력이 좋지 않아서 저녁을 일찍 먹어요.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네요.

12.어릴 적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보기엔 착하고 조용하고 공부도 잘하는 여학생이었을 거 같아요.

그냥 조용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공감 하실텐데 그 시절엔 학교를 마치면 집에 와서 집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든 선생님 말씀이든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13. ‘너의 삶을 온전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기도해요. 출근 할 때도 차안에서 중얼중얼 늘 기도 하죠.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14.권사님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저는 부끄러움이 아주 많고 자신감도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예배 대표기도도 생각 했던 대로 잘 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많 습니다. 엄청 떨리거든요. 제가 극복해야할 부분이에요.

15.둘째머느리 자랑 해 주세요. 짧게

모든 게 다 예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예쁘고, 노력하는 모습은 더 예뻐요. 사랑이 많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머느리입니다.

16.우리교회에는 아드님 부부를 포함하여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부부들이 많 습니다. 그 부부들에게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말 씀해 주세요.

많이 참아줘야 할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17. 교회란 () 이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교회란 (소망) 이다. 입니다

감사 릴레이

강연순 권사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의 힘을 통하여 남편이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 년 동안 이어진 많은 영적 싸움으로 많이 힘겨웠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권찰의 직분을 받았고 침례도 받았고 권찰 헌신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고 값지며 가장 기쁜 일입니다.

다음 : 이금자 권사님

웃으십시오!



주일 아침 대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찬양대를 마음껏 칭찬하고자 합니다.

찬양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어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달란트는 있는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이 사역은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분들은 주일 예배 전에 일찍 모여 찬양 연습을 하시고 또 예배 후에도 따로 남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성전에 나와 찬양을 연습하며 주일을 준비하시고 계신답니다. 일주일에 3번을 모이는 것이지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넉넉히 감당해 내고 계십니다.

때론 어깨를 들썩일 만큼의 힘 있는 모습과 경쾌한 모습으로, 때론 경건하고 엄숙하여 눈물 흐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 짱들이 다 모였습니다.

김정화 집사님의 지휘하시는 모습 아시죠? 찬양에 쏙 빠지게 하는 예쁜 달란트를 받으셔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부럽지 않게 멋있고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학생과 성도님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한 목소리 되어 들려주시는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아름다운 찬양이니 기뻐 받으시겠지요? 앞으로도 은혜로운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를 더욱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역 최고!!

- 충만구역 -



많지 않은 부부 구역 중 한 구역인 충만구역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함께 믿기 시작한 부부는 아니었어요. 모두 아내들의 전도를 통하여 구역에 이르신 남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이 독해서 남편을 전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수 있었던 거라구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헛갈리긴 하지만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 하시면서도 더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요즘 엄청 성장에 성장을 이루고 계신 **박영만 집사님**과 **내조여왕 이금자 권사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시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윤흥기 권찰님**과 자나깨나 남편 사랑으로 가득하신 **강연순 권사님!** 그리고 구역장인 저와 저에 남편 **나인철 집사님!**

어쩌다 부부구역의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배웠고 이분들의 열정을 통하여 오래전 잊혀졌던 성도의 열정을 되새길 수 있었지요~ 여자 권사님들이야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만큼 원래부터 열심하신 분들이었으니 말 할 것도 없고요. 박집사님과 윤권찰님을 통하여 오히려 구역장인 제가 더 배우고 있답니다. 저에 바램이 있다면 온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어떤 구역과 사역을 감당하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구역장을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파이팅!!

창립 24주년 만찬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 행복한 우리교회*



날마다 마을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2:46)



* 가을 여행 *





성경 숨은그림찾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물 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찌니라 (신 16:15)
[숨은그림: 불가사리, 모래시계, 은행잎, 배드민턴 공, 상어]

* 3%의 소금이... - essay.153 -



nooriart@naver.com



* 단 3%의 노금이 천체를 판 맛으로 물들이는데
20%가 넘는 크리스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않은디...

리브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브두엘의 딸이며 이삭의 아내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연결하다]로서 이름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 족장과 그 후손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한 인물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창 24:60).

이 축복을 따라 그녀는 시 어머니 사라의 뒤를 이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하면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

리브가는 히브리 지혜문학의 모델로 등장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상]을 지닌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을 핏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 하느니라] (잠 31:10 -12).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성 밖 우물가에서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멀리서 사막길을 걸어온 늙은 종에게 그녀는 공손하게 한 그릇의 물을 대접한 후에 목이 말라 혈덕이는 열필의 낙타에도 물을 주었다.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며 낙타에까지 물을 준것은 그녀의 근면과 성실을 나타낸 것이다. 옛 이야기에 한 지혜로운 처녀가 물을 좀 달라는 한 청년에게 물에 채하지 않도록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워서 천천히 마시도록한 가혹한 행위,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그녀는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하는 사건이다.

이처럼 리브가는 지혜롭고 성실한 여성이었는데 하면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도 남다른 선별력과 결단력이 있었다. 주위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서슴없이 나섰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장자권문제로 신경전을 벌리고 있을 때 리브가는 야곱 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순순히 실현 되도록 중보역을 서슴없이 감당해 나갔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믿음으로 섭리에 순종한 이상적 신자상이라 할 수 있다



<이단>

사람들은 왜 사이비종교에 빠질까?

최근 유명인의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한 연예인은 이단 종교를 믿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에 전도 목적의 게시물을 올려 크게 논란이 되었다. 한 유명 유튜버 또한 영상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해 영상을 올렸는데, 이단임이 밝혀져 사실상 유튜버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다. 사이비 종교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웹드라마 ‘구해줘’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웹툰 ‘외모지상주의’에선 사이비 종교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기도 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수입과 유명세를 갖고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정의는 모호하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유교에도 이단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하면 보통 이쪽을 칭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경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무언가, 따로 숭배하는 우상이 있고 구원의 정의가 다르다. 구원받는 방법 또한 다르며 이와 관련해 헌금이나 십일조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금 등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 대해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 발을 들이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도할 때는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인 척 하고 막상 예배 때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교재를 이용했다.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징물도 십자가가 아닌 비둘기인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사이비 종교들도 전도할 때는 일반적인 종교인 시늉을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신도가 되면 그때서야 과도한 헌금 등을 요구한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의 삶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비 종파의 종류와 이름 등에 대한 넓은 홍보와 비인륜적 종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는 겸손

F.B.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였다.

쿠크 선장의 겸손

해양 탐험의 역사를 보면 쿠크선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기도 했으나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한 그의 생활태도가 많은 업적을 남기게 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쿠크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잡화점 사환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에 자주 들러 쿠크를 대하던 선주 워커는 쿠크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에 태워 견습사원이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바다 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느 날 북해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선장은 넘어져서 까무라치게 되었다. 이때 쿠크가 감연히 일어나 선장을 대신하여 배를 지휘하였다. 그의 항해술은 놀라워 잠시 후에는

폭 풍
권

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후에 이 사건을 전해들은 선주 워커는 어린 쿠크를 칭찬했으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좋은 글>

한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해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희망을 잃고 낙담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사장은 하얀 수건에 검은 점을 하나 찍은 수건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직원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러자 사장이 힘 있게 말했습니다.
"검은 점만 보지 말고 그 검은 점 이외에는 모두 흰색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는 이 검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은 점만 빼고는 모두 흰색이며 그것을 빼고는
모두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좌절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사실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훨씬 넓은 흰색의 바탕을 보지 못하고 작은 점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흰색 바탕을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언제나 긍정이 부정을 이깁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다.



반려견의 학대? 사람의 안전?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바로 반려견 관련 사고들이다.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아.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 하는 생각에 밖에 나올 때 목줄을 사용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들이 다반사다. 요즘은 법적으로도 대형견과 경우 외출할 경우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이지만 우리 강아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외출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강아지를 학대한다고 생각해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시민들을 무는 경우가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식당 사장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다시 이야기 되는 것이 대형견의 안전장치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과 처벌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견공에 의한 피해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키우던 견공을 안락사 시키거나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면 견주에게는 적당선의 벌금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사용어 Briefing

1. 리타겟팅광고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접속기록 혹은 구매내역 등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관심분야에 적합한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가능성을 높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의류, 가전제품 등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제품을 살펴본 후 타 뉴스 사이트를 방문하였을 때 이전에 보았던 제품들이 배너 형태로 보이는 방식의 광고들을 말합니다.

2. 옥상가옥

어떠한 일을 부질 없이 반복하거나 필요없이 생긴 뒷자리를 가리킬 때 옥상가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집 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고사성어는 중국 북제의 안지추라는 학자가 저술한 책의 서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붕 밑에 지붕을 또 세우는 것과 같다고 적혀있는데요. 원전에는 옥하가옥이라고 쓰였지만 현대에는 옥상가옥, 혹은 옥삭옥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3. 포노사피언스

현 인류의 직계조상이라고 불리는 영장류는 호모사피언스입니다. 이런 호모 사피언스에 다양한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중 호모 사피언스에 스마트폰을 합성한 단어, 포노 사피언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노사피언스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를 힘들어 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 오픈코스웨어

대학들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싶다면 반드시 그 대학에 입학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코스웨어를 활용한다면 말이죠. 오픈코스웨어를 이용하면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와 MIT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KOCW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쁜 우리말

1. 마당밭이 : 선달 그믐날 밤에 풍물을 치며 집집이 돌아다니며 노는 놀이
2. 마파람 :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은 '썰바람', 서풍은 '하늬바람', 동북풍은 '높새바람'
우리나라의 집들이 대문을 남쪽으로 둔 남향(南向)인 것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주 오는 바람'이란 뜻으로 됨 '마'는 '남쪽'을 이룸
3. 막서리 : 남의 집에서 막일을 해 주며 살아가는 사람
4. 머슴밥 : 수북하게 많이 담은 밥. 머슴이 밥을 많이 먹는데서 나온 말
5. 멍에 : 마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6. 메 : 물건을 치는 데 쓰는 연장. 묵직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박은 것(떡을 치는 메를 떡메, 쇠로 만든 메를 쇠메라 함)
7. 모르쇠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전부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
8. 모름지기 : 마땅히, 차라리
9. 모지랑이 : 오래 써서 끝이 닳아 떨어진 물건
10. 모질다 : 보통 사람으로는 차마 못할 짓을 할 만큼 성질이 악하다

예쁜 순수우리말을 더 아끼고 사랑하자!!!

잠이 익어 갑니다

박기숙 집사

잠이 익어갑니다.

마른 가지 사리로
누렇게 오그라든 잎사귀 사이 사이로
불타는 저녁 노을처럼 익어 갑니다.

아마도
초록에 지친 계절이
남기고 간 선물인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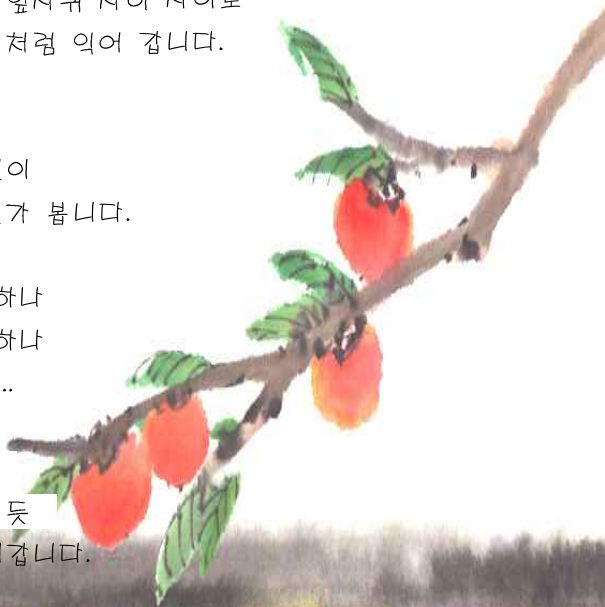
잠 하나에 소망 하나
잠 하나에 기도 하나
또 잠 하나에

셀 수 없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인 듯
그렇게 잠이 익어갑니다.

아이들이 달려 옵니다.
감나무가 빙긋이 가지를 내려 줍니다.
아이들의 함박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잠이 익어갑니다.
붉은 저녁 노을처럼 잠이 익어갑니다.

내 노래도 익어갑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울동선교단 헌신예배 / 11월 5일 오후6시
2. 기관별 정기총회 / 11월 5일~12일
3.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6일~10일
4. 추수감사절예배 / 11월 19일
5. 찬양대회 / 11월 19일 오후6시
6. 찬양예배 / 11월 26일 오후7시30분

◎ 공지사항

1. 11월 생활실천표어 /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2. 11월 신앙서적 / 행복한 인생학교 ‘차영하 외 3일’ 지음

◎ 이달의 교우소식

1. 결혼식 / 조경환청년(박혜주청년) - 11월 11일 오후2시
설악웨딩타운 3층 다이아몬드홀
임진호청년 - 11월 25일 오후1시 설악웨딩타운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넷 <http://www.difgc.org/m/index.htm>